

기 고

훈풍 불던 한일 관계에 '포스트 이시바' 체제, 도전일까 기회일까

최 은 미

연구위원

2025-09-22

두 달 전 일본 참의원 선거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이시바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 여겨졌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했고, 이시바 총리는 결국 임기 1년여 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사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달아 참패하며 이시바 총리의 사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자민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잇달아 불거졌다.

“누가 집권해도 한일 관계 크게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이례적으로 자민당의 선거 패배가 이시바 총리 때문만은 아니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시바 총리는 임기를 지속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악화되는 당내 여론을 버티지 못하고 이시바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고, 일본 정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7년8개월의 최장수 총리로 집권하며 일본 정치는 자민당 ‘1강(強) 구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자민당은 제1 정당으로서의 우위는 유지하지만, 국회의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대다수 사안에서 타 정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즉, 기존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합의만으로도 국정운영

에 큰 무리가 없던 자민당이 이제는 공명당 외에 새로운 연립여당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곧 일본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 곧 일본의 총리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선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민당의 새로운 연합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곧 자민당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5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당대신(64),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대신(44),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당대신(50),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69)이 바로 그들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당대신과 고이즈미 농림수산대신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유로 한국에서는 우익 인사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와 정책의 대결'이다. 투표권을 갖는 자민당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의 목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열린 자민당의 보수적 색채를 선명하게 해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 참정당과 국민민주당 등 대안 정당들에 빼앗긴 기존 보수 지지층을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인지도가 높고, 메시지 능력이 뛰어나 선거에 강한 고이즈미를 선택한다는 것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통해 현재의 구도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고이즈미는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1차 선거에서는 의원 표 1위였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지나친 보수 경도와 고이즈미의 경험 부족은 오히려 하야시 관방장관 혹은 모테기 전 간사장 등 중진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낳게 한다. 현재의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외무대신, 경제산업대신, 방위대신 등 굵직굵직한 요직을 경험하며 실무 경험을 갖춘 중진 의원들이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빠르게 잠재우며,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5명의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지난 총재 선거에 이어 연달아 출사표를 던지는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대신이 자민당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첫 번째 입후보였음에도 9명의 후보 중 5위를 했다. 그는 당시에 출마했던 하야시 관방장관과 모테기 전 자민당 간사장보다도 많은 의원의 표를 획득하며, 의원 표만으로는 4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당장은 총리 자리에 오르기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차기 유력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한국, '한일 우호→양국 이익' 더 널리 알려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오는 9월말로 전해지는 이시바 총리의 방한으로 이어지는 한일 관계 훈풍은 일본 총리 교체로 또 한번 도전에 직면했다. 물론 한일 관계의 중요성,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한일 양국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양국 간 상호인식과 호감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지도자 한 사람의 교체로 한일 관계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 갈등 이슈인 역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 지도자의 행동과 발언 등은 양국 관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도발, 한국의 대응, 그리고 다시 일본의 대응이 이어지는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 속에서 한일 관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양국 간 우호 구도를 깨지 않는 것이 양국에 전략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이 왜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2013년 아베 총리의 참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일본의 역대 총리 중 어느 누구도 현직 총리로서 참배하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본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에 대한 배려야말로 외교의 첫걸음이며, 관계의 시작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 본 글은 9월 21일자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